

남가주교협 제56차 정기총회, 신임 회장 김은목 목사

이사회-임원회 관계 정비 정관 대폭 개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는 지난 11월 16일(주일) 오후 4시 LA평화교회에서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김은목 목사(LA평화교회), 수석부회장에 김대준 목사(비전동행교회)를 선출했다.

1부 예배 및 회무 진행

1부 예배에서는 샘신 목사(제55대 회장)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잠 24:3~3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충희 목사(총무)의 광고와 정해진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본회의는 샘신 목사의 사회로 회순 채택, 전 회의록 낭독(서기 박창근 목사), 업무·감사·회계·이사회 보고, 안전토의, 공천위원회 보고(공천위원회 서기 민종기 목사), 정관개정위원회 보고(정관위 서기 이충희 목사), 선거위원 선임, 선거, 신임 회장단 인사, 회의록 채택, 폐회 기도(최학량 목사), 폐회선언(신임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핵심 안건: 이사회-임원회 관계 정비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교협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LA평화교회에서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이사회와 임원회 간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는 정관 개정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특히 과거 내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이사회와 임원회의 수평 관계’ 조항 삭제 여부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김영구 목사는 질의에서 “과거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는 임원회와 수평 관계’라는 조항은 조직 내 이원 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은목 목사와 정관개정위원회는 “문제가 되었던 수평 관계 조항은 전면 삭제되었고, 후원 이사 등 구분을 없애 단일 이사회 체제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권 분리 우려도 제기되었다. 김 목사는 “이사회가 독자적 재정권을 행사하면 교협 안에 두 개의 기구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며 “분열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교협은 비영리 법인이므로 이사회와 임원회는 경쟁 구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 구조”라며,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관을 개정하며 조직 운영과 회원 규정 전반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명칭 통일, 정치적 중립 강조, 회비 납부 기한 명시 등 실무적·

정책적 부분의 개선이 중심이 됐다.

교협은 우선 1조 명칭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로 통일했다. 또한 4조에는 정당 지지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종교 단체로서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제8조 3항은 ‘회비는 총회 후 임명 시 60일 이내 납부’로 규정하고, 미납 시 임명 효력이 자동 소멸되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상벌 규정인 제10조는 기존의 ‘자문위원회’ 표현을 삭제하고, 상벌 관련 사항을 임원회와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도록 조정됐다.

15조 3항에서는 제적 사유 발생 시 처리 주제를 비상설기구인 지도위원회에서 임원회로 변경했다.

임원 구성 조항 역시 일부 조정됐다. 17조 1항에서 회장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자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했으며, 19조 2항에서는 공천위원회를 증경 회장단·임원회·이사회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개정안이 반영됐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교협은 임원회 중심 사역에 이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교협이 되자”고 다짐하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美 플로리다, 사상 최대 규모 ‘실종 및 납치 아동 구조 작전’

아동 122명 구조, 가해자 체포

미국 플로리다주 제임스 어스마이어(James Uthmeier) 법무장관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아동 구조 작전 중 하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보안관국이 주도한 ‘명절 맞이 귀가 작전’(Operation Home for the Holidays)을 통해 주 전역에서 총 122명의 아동이 학대자들로부터 구조됐다.

어스마이어 장관은 17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 신고된

122명의 아이들이 다시 안전한 보호 아래 돌아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그들은 인신매매, 착취, 학대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으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구조된 아동들의 나이가 2세에서 17세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성인 6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음란 행위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체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플로리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James Uthmeier

명 △포트 마이어스 29명 △잭슨빌 22명 △올랜도 14명 △플로리다 외곽 13명(이 중 2명은 멕시코

와 과테말라 출신) 등이다. 어스마이어 장관은 “플로리다에 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 핵심이며, 범 집행에 있어 그보다 더 큰 소명은 없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중부지구 빌 버거(Bill Berger) 연방보안관은 그는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플로리다에 와서 아이들이 괴롭히거나 학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당신들을 가능한 한 오래 감금할 것이며, 아동 성폭행이 확인될 경우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당신들은 플로리다에 환영받지 못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가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CHÉ AHN
★ FOR GOVERNOR ★

CALIFORNIA FIRST! 한인 최초 유일한 공화당 주지사 후보

“부모님 손을 잡고 5살에 이민 와서 생존을 위해 기도했던 안재호(체 안)는 위대한 동포 여러분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Survive)
(Thrive)

- ☑️ 풍요롭고 번영하는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 ☑️ 깨끗하고 안전한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 ☑️ 정의롭고 공정한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안재호(Ché Ahn)후보가 나셨습니다.



www.che4ca.com



This message is paid for by Ché Ahn for Governor 2026

ANC 온누리 교회, 시니어 건강세미나 성료

화평회 주최 지역사회 섬김 사역
마취과 전문의 윤광열 장로
시니어 건강 문제 및 관리법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지난 11월 15일(토) 오전 9시 지역 주민들과 교회 내 화평회(담당 이진형 목사) 회원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 건강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화평회 회장 임연재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강의는 ANC 온누리교회의 윤광열 장로(마취과 전문의)가 맡아 시니어들

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나누었다.

윤 장로는 노년층이 흔히 겪는 통증과 수면 문제, 약물 사용의 주의점,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응급 상황시의 신속한 대처법과 만성질환 예



ANC 온누리교회가 지역 사회 섬김 사역의 일환으로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 기독교일보

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시니어 회원은 “전문 의사의 강의를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큰 감사를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ANC 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교회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셉 리 기자

얼바인 온누리 12월 6일부터 ‘결혼예비학교’

성경적 결혼관·재정·성품
부부의 하나됨 등 실질적
커리큘럼 제공

얼바인 온누리교회(담임 박신웅 목사)는 오는 12월 6일(토)부터 20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총 3회에 걸쳐 ‘예비부부 결혼준비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얼바인 온누

리교회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커피당 100달러로 식사와 교재가 제공된다.

이번 결혼준비학교의 커리큘럼은 실제 결혼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좋은 성품으로 결혼예비하기 ▲하나됨의 비밀과 성(性) ▲성경적 결혼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자아상과 다름의 축복 ▲신혼 부부를 위한 재정의 첫걸음 ▲결혼을 넘어 가정으로 등이다.

강사진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영숙 박사(좋은나무 성품학교)가 성품과 인격을 중심으로 한 결혼준비를, 유수열 목사(한국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전문강사)가 성경적 결혼과 부부 관계를, 김남재 집사(Newcrest Investment Manager)가 신혼 재정 기초를, 박신웅 목사(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영적·가정적 관점의 조언을 전한다.

문의는 이용희 팀장(949-375-6069)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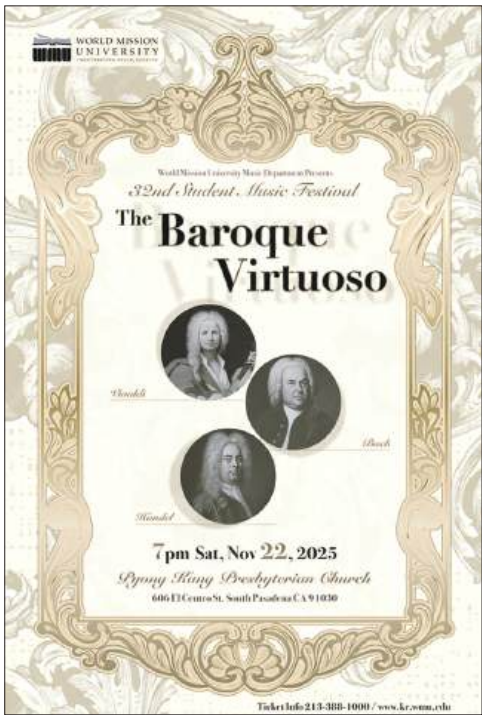


은혜한인교회는 22일(토) 새벽까지 추수감사 새벽부흥회를 진행한다. ©gracemi.com

월드미션대학교 학생 음악회 22일 평강교회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음악대학에서는 오는 11월 22일(토) 오후 7시 패서디나에 있는 평강교회(송금관 목사,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에서 ‘바로크 비르투오소(The Baroque Virtuoso)’라는 주제로 제 32회 학생 음악회를 개최한다.

Esther Sungah Beack, 오정록, 박보미, 김은정, 김지은, 에스더 김이 지휘자로 서며, WMU 바로크 챔버 앤 앙상블, 터너 오정록, 소프라노 최윤정, 트럼펫 데이비드 코텔로(David Coatello), 데이비드 에터백(David Etterbeek) 피아노



의 전신인 건반 악기 하프시코드(Harpsichord) 연주자 김경희, 류인숙이 출연한다.

주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故 존 맥아더 목사가 56년간 목회하며, 선 밸리(Sun Valley)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12월 18일(목)부터 21일(주일)까지 합창단, 교향악단, 앙상블, 독주자가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 티켓은 11월 23일(주일) 파티오에서 판매되며, 11월 24일(월)부터 오스피 센터 리셉션 데스크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LA 카운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는 11월 24일 이후에 concert@grace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예약할 수 있다. 예약된 티켓은 콘서트 당일 밤에 웰컴 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이 공연은 무료이며 좌석이 개방되

어 있다.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윤준기자

콘서트 일시

12월 18일(목) 오후 7:30

12월 19일(금) 오후 7:30

12월 20일(토) 오후 2시, 6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 gracechurch.org/

12월 21일(주일) 오후 6시(라이브 스트리밍 가능)

문의: concert@gracechurch.org, 818-909-5755

주소: 13248 Roscoe Blvd, Sun Valley, CA 91352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원준 목사 청빙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지난 10월 28일(주일)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거쳐 이원준 목사(랭캐스터 바이블 칼리지 목회학석사와 정 디렉터)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4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확정했다.

이원준牧사는 청빙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 지난 10월 12일 이 교회에서 주일예배 때 설교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영어고등부, 청년부, 찬양사역 등을 섬기며 부교역자로 사역했다. 이후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청년부와 찬양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했다.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에서 예배아카데미 부학장에 재임 중이며, 펜실베이니아주 랭캐스터에 위치한 랭캐스터 바이블 칼리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거쳐 이원준 목사를 4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확정했다. ©사랑의교회

지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디렉터 및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목사는 USC에서 음악산업학을 전공했으며, 바이올라 대학에서 기독교 변증학 석사,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남침

례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린지 리(Lindsey Lee) 사모, 딸 올리비아와 아들 메튜 주니어가 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 위치한 최대규모의 한인교회이자 최대규모의 미국 내 아시아계 교회로 알려진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1988년 오정현 목사에게 개척되었다.

이후 2대 김승욱, 3대 노창수 목사가 담임으로 섬겼으며, 4대 이원준 목사는 2026년 위임 예정이다.

주디 한 기자

남가주교협 제56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제56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오는 11월 25일(화) 오후 5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린다.

남가주교협은 지난 11월 16일(주일) 오후 4시, LA평화교회에서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김은목 목사(LA평화교회), 수석부회장에 김대준 목사(비전동행교회)를 선출했다. 55대 회장 샘신 목사와 임원들은 “남가주 1,400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며, 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참석과 기도를 요청했다.



이날 이·취임 감사예배 설교는 진유철 목사(제43대 증경회장)가 전한다. 한편, 청년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사장배 골프대회를 통해 총 1만 달러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남가주교협은 이 후원금을 청년목회자 15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전달식은 이·취임 감사예배 중에 함께 진행된다.

조셉 리 기자
일시: 11월 25일(화) 오후 5시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 내달 1일 개막

남가주사랑의교회는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는 12월 1일(월)부터 13일(토)까지 개최한다. 특새의 주제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이며 시간은 평일 오전 5시, 토요일 오전 6시다.

첫날인 1일(월)은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이형석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이어 2일(화)부터 4일(목)까지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5일(금)은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가, 6일(토)과 7일(주일)에는 퀸즈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2주 차에는 영어권 강사들과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한다. 8일(월)과 9일(화)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인 조엘 김(Dr. Joel Kim)



박사, 10일(수)과 11일(목)은 탈봇 신학교 매튜 윌리엄스(Dr. Matthew Williams)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12일(금)과 13일(토)은 엑실릭 교회(Exilic Church)의 아론 정(Dr. Aaron Chung)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일정

12/1(월) 이형석 목사
12/2-4(화-목) 송태근 목사
12/5 고태형 목사
12/6-7 (토-주일) 김 바나바 목사
12/8-9(월,화) Dr. Joel Kim
12/10-11(수,목) Dr. Matthew Williams
12/12-13(금,토) Dr. Aaron Chung

사랑의교회 당회, 윤대혁 목사 청빙 만장 일치 결의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당회가 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51)를 제3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교회 측은 “청빙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동안 기도하고 숙의를 거쳐 윤대혁 목사를 청빙 후 보자로 추천했다”며 “윤 목사는 추후 제직회, 공동의회 등의 위임

절차를 거쳐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고 알렸다.

윤대혁 목사의 청빙이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윤 목사는 동사(同事)목회를 거쳐 2027년 초에 위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윤대혁 목사는 종신대학교 신학과(BA)와 동 신학대학원(M.Div),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를 나왔다.

서울 오륜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고,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도 대학부 및 청년부에서 사역했다. 2013년 11월 사랑의빛선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월드미션대, 한국 재학·졸업생 동문회 개최

월드미션대학교가 한국 재학생과 동문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를 최근 마련했다. 이 모임은 경기도 수원 시온소교회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모임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약 10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했으며, 임성진 총장이 참석해 학교의 비전과 사역 방향을 나눴다. 임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WMU는 1989년 설립 이래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사명으로 삼아왔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천적 리더를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동문들의 사역 이야기를 담은 기념집 ‘사랑의 동행 2025’가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를 통해 월드미션대학교가 전 세계로 확장된 사역자 공동체임을



월드미션대학교 한국 재학·졸업생 동문회 참석자 단체 사진. © wmu.edu

다시금 확인했다.

이번 동문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학교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 양성”이라는 비전을 마음에 새겼다. 또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WMU 공동체의 연합을 확인하는 계기였으며, WMU가 복음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임을 기대하게 했다.

김진영 기자

담임목사 김지훈

동양선교교회 예배안내

주일 예배 안내

1부예배 오전 7시30분 / 본당
2부예배 오전 9시30분 / 본당
3부예배 오전 11시 30분 / 본당
4부예배(젊은이 예배) 오후 1시30분 / 비전센터

주일학교

OMC주일학교 오전 11시30분 / 교육관 1층
OMC중고등부 오전 11시30분 / 비전센터
OMC사랑부 오전 11시30분 / 교육관 427호

기도회 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 본당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시10분 / 본당

Happy Thanksgiving

동양선교교회

온라인 바로가기

동양선교교회

The Oriental Mission Church

주소 |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전화 | 323-466-1234

홈페이지 | omc.org

체 안 후보, “시민이 주인 되는 정부” 비전 제시하며 출마 선언

남가주 한인사회 및 교계 지도자들 참석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인 2세 체 안(Che Ahn, 한국명 안재호) 후보는 18일 오전 로스 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기자회견 및 출마 설명회를 열고, “시민이 주인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체 안 후보는 현재 패서디나 지역에 하비스트락처지(Harvest Rock Church)의 담임 목사를 맡고 있으며, 이날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월드쉐어 대표 강태광 목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체 안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 주 정부의 정치 구조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일반 시민,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인으로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교포를 비롯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높은 세금과 복잡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체 안 후보는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주지사가 주민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예로 주민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 36(Prop 36)’이 무시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체 안 후보는 현재 개인 뉴섬 주지사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인 2세 체 안 후보가 기자회견 및 출마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독교일보

그는 뉴섬이 “경찰 예산을 줄이고, LA 소방국(LAFD)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향으로 기울면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을 이루기 어려워졌”다며, “단일 정당 독점 체제를 깨고 진정한 시민 중심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 안 후보는 자신이 그리는 캘리포니아의 미래로 “안정되고 안전한 공동체”를 약속한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를 주인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목표라며, 세금 부담 경감, 규제 완화, 정부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열이 아닌 연합, 좌절이 아닌 희망의 캘리포니아를 만들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다양한 계층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포용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체 안 후보는 한국 전쟁 직후 한



남가주 교계 목회자들이 이날 체안 후보를 위해 합심기도 했다. © 기독교일보

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다.

학창 시절 신앙을 통해 삶이 바뀌었고, 풀러 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목회자로서 40년 넘게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

해 왔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종교 자유 제한에 반대하며 수백 개 교회와 연합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도 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의로운 자는 나라를 일으키고, 의로운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부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주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밝혔다. “2022년 어느 아침,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 잠을 잘 수 없었다. 일어나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으셨다.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저는 충격이었다. 이것만은 묻지 않으시길 바랬다. 지금 생각해도 큰 충격이다.” 그는 여전히 그 부르심의 무게를 느끼지만, “주님으로부터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 안 후보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후보 출마를 위해 세 가지 기도제목을 요청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인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처음이다.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이 파트너가 되어 준다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그러운 재정 지원을 부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뉴섬 주지사의 3선이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2026년 주지사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체 안 후보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공화당뿐 아니라 중도와 소수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대안적 보수-중도 진영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윤준 기자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12월 1일 두번째 모듈 개강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PU) 부설 평생교육원(PULI)이 개설한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의 두번째 모듈(SPM02)이 12월 1일 개강한다. 평생교육원은 두번째 모듈의 수강생을 11월 28일(금)까지 모집한다. 두번째 모듈은 ‘영성 노년학’, ‘시니어 정서적 웰빙’, ‘시니어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신학, 심

리, 정신 건강 관점을 통합한 실천 중심으로 구성된다.

등록은 구글 폼(<https://forms.gle/t3yzBLxQ8uTsYe3s8>)을 통해 할 수 있다.

두번째 모듈의 오리엔테이션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진행된다.

문의: CPU 평생교육원 황성만 목사
Email: puli_pm@cpu.edu
웹사이트: lifelong.cpu.edu
전화: (562) 536-0128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충성한 혜택 가을스페셜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213.999.3935

JUSTIN KIL 213.276.8959

CHARLEY JEONG 213.839.3332

JAMES PARK 949.433.1378

HARLEY KIM 323.823.0682

Frank Kim 213.605.2886

Sean Kim 714.319.4611

Jae Le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사우스베이 최고 주치의가

가든그로브에서도 진료 시작!

DONGJIN SUNG, M.D.

성동진

내과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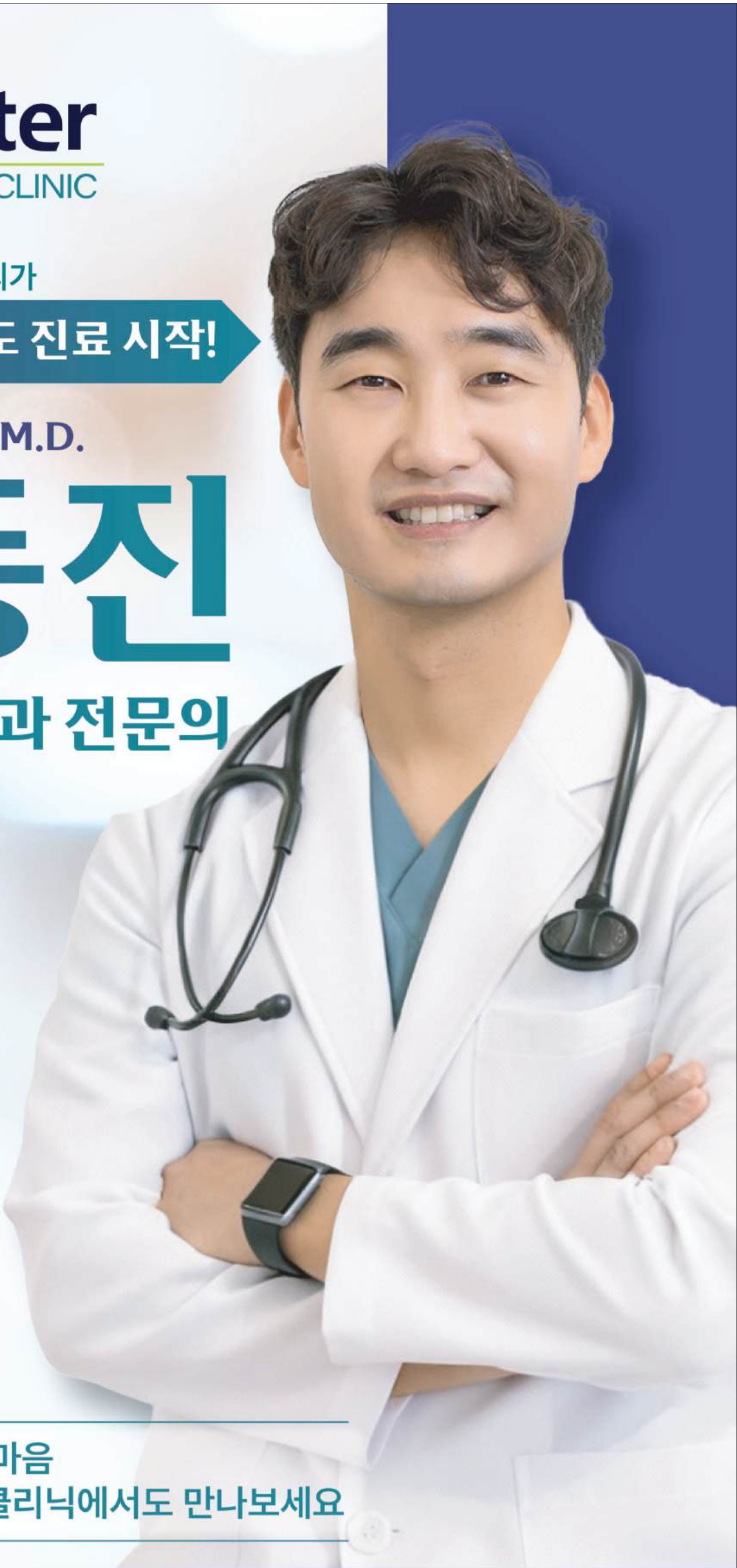
내과 진료

고혈압 · 당뇨 · 각종 성인병
비만 대사 질환 · 예방접종
각종 암 검사 및 조기 진단



시니어 전문 진료

노인성 만성 질환 · 근감소증
인지 기능 저하 · 식욕부진



새로운 공간, 변함없는 마음
이제 센터메디컬 직영 클리닉에서도 만나보세요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가디나 성동진 내과

17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HOUR OF OPERATIONS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83 - 8569

월, 화, 목

8:30 AM - 4:30 PM

수, 금

8:30 AM - 12:00 PM

(424) 551 - 3111

김혜진 집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2025 다니엘기도회: 17일] 큰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린도후서 1:3-4)”.

I. 하나님을 오해하며 자라난 어린 시절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앙보다 먼저 배운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정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부모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상처가 많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폭언이 폭발하는 날들이 많았고,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집안의 공기를 살피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설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마음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제가 떠올린 아버지란, 어떤 순간에도 안전하지 않고, 감정이 예고 없이 폭발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벌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실수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저는 거의 매일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그건 생존 도구였습니다. “잘하면 덜 혼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결으로는 칭찬받는 학생이었고, 밝고 착한 아이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저는 ‘밖의 나’와 ‘집 안의 나’라는 전혀 다른 두 자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중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II. 남편을 통해 다시 시작된 복음: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런 내면을 가진 채 성인이 되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울, 죄책감, 낮은 자존감이 제 인생을 끊임없이 끌어내렸고, 특히 사랑을 믿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고 하면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보면 떠나지 않을까?” 결국 과도하게 의심하고 시험

하며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던 중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의 배우자는 혜진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듯, 너도 혜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라.”

남편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은 남편을 내 인생의 보호자이자 파수꾼으로 세워 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교회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겔317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성경을 펴니, 한 구절은 에스겔 3:17이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남편을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그 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주시는 말씀을 남편이 대신 받아 써서 이메일로 보내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직접 들을 수 없던 하나님의 음성을, 남편을 통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절, 에스겔 31:7 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다우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너는 내가 큰 물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평생 ‘가지 없다’는 거짓말을 믿었지만 나는 너를 아름답게 자라게 할 것이다.”

그날 처음으로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작은 씨앗이 싹났습니다.

III. 무너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병원, 세례, 그리고 회복

그러나 회복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공부로 미국 텍사스에 갔을 때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영어도 부족하고, 문화도 모르고, 모든 것이 제게는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결으로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상처는 계속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견디다 못해 저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진 집사가 간증하고 있다. ©유튜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괜찮아. 우리는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

이 한 마디들이 얼어붙은 제 마음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남편, 영적 부모님, 상담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영역들을 손대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에서 백인 할머니·할아버지가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영적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면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기도해 주며 제게 ‘안전한 부모’를 처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남편과 저는 다시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야외에서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마음 속에서 울컥하게 올라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는구나.”

그 순간 이후 제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IV. 일곱 번의 임신과 다섯 번의 유산: 상처의 대물림을 막으신 하나님
회복 중에도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총 일곱 번의 임신을 했고, 그 가운데 다섯 번을 유산으로 보냈습니다.

① 첫 번째 임신: 11주 계류유산
작고 어린 생명이 조용히 제 안에서 떠나갔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② 두 번째 임신: 22주 조기 양막 파열
의사는 말했습니다.

* 지금 수술로 아이를 보내는 방법
* 24주까지 버틸 경우 NICU로 보

내는 방법(중증 장애 가능성 높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살려 주세요.”

놀랍게도 계속되던 진통이 기적처럼 멈췄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의 왜곡된 기준을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살아왔으니 내 아이는 더 잘해야 한다” 이 생각은 상처를 대물림하는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통이 다시 시작되었고 19시간 후 아들은 세상에 태어나, 짧게 머물다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작은 손과 발을 어루만지며 노래하고 기도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가야, 와줘서 고마워. 너를 통해 우리가 부모가 되어 간다.” 그 아이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③ 이후의 여러 유산
몸도 마음도 반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들까지도 제가 다른 엄마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20주 이후 유산을 겪은 엄마들은 출산과 같은 신체 변화를 겪지만 그 사실을 알려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젖은 도는데 아이는 없고, 몸은 산후처럼 붓고 마음은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길을 여러 번 걸은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위로와 언어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 큰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위로받은 자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저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받은 위로와 회복

을, 다른 이들을 돕는 자리로 계속 이끄셨습니다.

① 회사와 커리어
미국에서 문헌정보, 소프트웨어, 간호학, 행정 등 여러 분야를 공부했고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임원 비서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제 능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영어, 배경, 스펙만으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면 제 커리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② 관계와 치유
사람이 두려웠던 제게 하나님은 사랑을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사람에게 보였던 과민 반응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직에서 관계 조율과 정서적 중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③ 유산·임신·출산을 겪는 자들에 대한 위로

제가 겪은 고난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상처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덜 아픈 유산은 없습니다. 네 탓이 아닙니다. 충분히 울어도 됩니다. 충분히 아파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고통의 재활용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상처 난 곳을 통해 기쁨이 흐른다”는 말처럼 제가 아팠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VI. 결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 한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마흔이 넘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의 과거는 화려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상처를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분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큰 물가에 심은 아름다운 나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기도는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최원호 박사
심리학자·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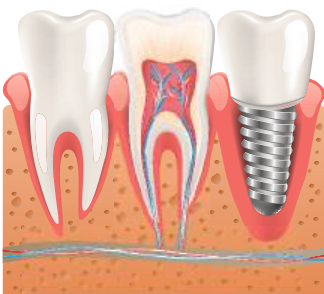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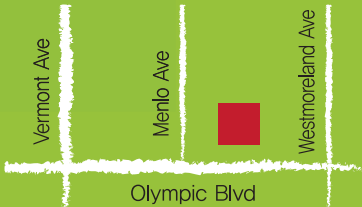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늘 [] 이
먼저였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늘 꿈이 먼저였습니다.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당신.

이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스코틀랜드 낙태법 전면 완화 논란 “출산 직전까지 허용은 극단적”

스코틀랜드 정부가 ‘출산 직전까지 낙태 허용’ 등 강력한 낙태법 완화 권고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기독교 및 친생명 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권고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요청으로 ‘낙태법 개혁 전문가 그룹(Abortion Law Reform Expert Group)’이 마련한 최종 보고서에 담겼으며,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정부에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현행 낙태 절차에서 필요한 두 명의 의사 동의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유 제한 없는 낙태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실상 ‘요구 시 낙태(Abortion on demand)’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산 직전까지도 두 명의 의료인이 “적절하다고 선의로 판단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24주 이후 낙태를 산모 생명 위협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개정 낙태법에서 성별 선택적 낙태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낙태 제공 의무’ 도입 ▷낙태의 일종을 사실상 권리로 법제화 ▷집에서 낙태된 아기의 은닉 행위를 처벌하는 ‘스코틀랜드 출생 은닉법’ 폐지 등이 제안됐다.

양심적 거부권은 허용하되, 거부의 효인은 다른 제공자에게 반드시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독교 공공정책 단체 CARE for Scotland는 보고서를 “극단적”이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CARE 공공정책 디렉터 캐롤라인 앤셀(Caroline Ansell)은 “이 권고안이 시행되면 여성과 아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며, 특히 후기 낙태의 위험에 여성들이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며 “이는 스코틀랜드의 여성·아기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은 전 스코틀랜드 총리 함자 유사프(Humza Yousof)가 구성했으며, 위원장인 애나 글레이저(Anna Glasier) 교수는 주요 낙태 제공 기관 BPAS의 전 이사다. 현 BPAS 옹호 책임자도 위원으로 포함돼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친생명 단체 ‘생명을 위한 권리’(Right to Life UK)는 “낙태 제공 기관과 밀접한 인사들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비판했다.

태아 생명 보호 협회(SPUC)도 “여성고 미래 세대에 재앙적”이라고 비난하며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PUC의 마이클 로빈슨 사무총장은 “보고서가 낙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번 제안은 파괴적 수준”이라며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거의 무제한 낙태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태아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생명을 위한 권리’ 측은 이번 권고가 “잉글랜드·웨일스의 기존 논의보다 훨씬 극단적이며, 유럽 대부분 국가가 12주 제한을 두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24주 이후 생존 가능한 태아의 낙태 증가 ▷‘적절성’ 판단의 주관성으로 인한 사회적 이유의 후기 낙태 허용 ▷타 지역·해외에서 스코틀랜드로 오는 ‘낙태 관광(Abortion tourism)’ 증가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생명을 위한 권리’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은 “여론과 동떨어진 극단적 활동가들이 만든 보고서”라며 “출산 직전까지 아기 생명을 끝낼 수 있게 하는 비인도적 법 개정은 여성 대다수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극단적 법 개정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프랑스 전역 500개 복음주의 교회 연합예배로 하나 되다



프랑스 전역에서 약 500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참여한 대규모 연합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kahtwancros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프랑스 전역에서 약 500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참여한 대규모 연합 예배가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간) 일제히 열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프랑스 복음주의연맹(CNEF)이 주도한 이번 전국적 예배의 날은 총 85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약 7만 명의 성도들이 한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

CNEF와 Impact France의 보고에 따르면, 릴(Lille)에서 마르세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에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연합과 복음의 중심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프랑스 교회의 일치, 사회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전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CNEF는 LinkedIn에 올린 글을 통해 “85개의 연합 예배에서 드러난 놀라운 연합의 물결이 세속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반향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프랑스 국영 TV 프로그램 Envoyé spécial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된 이후 더욱 주목되는 변화였다. CNEF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독교인들을 극단적, 동성애 혐오적, 조종적 집단으로 그린 것에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연합 예배의 구상은 2년 전 CNEF가 비전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CNEF는 이

번 행사에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것’, ‘프랑스 사회 안에서 복음을 가시화하는 것’, ‘교회·단체·선교기관 간의 협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Impact France 보고서는 이 예배들이 철저히 초교파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교회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된 사명과 소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CNEF 역시 이번 연합 예배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지역 교회들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전도, 제자훈련, 사회적 섬김에서 새로운 연합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DI는 프랑스가 연말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란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pact France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연합 예배를 통해 확인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연합과 목적의식이 프랑스 사회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CNEF는 행사 이후 LinkedIn을 통해 “앞으로 또 이러한 연합 예배가 열릴 것인가?”라는 전국 각지의 질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NEF는 “서로 다른 공동체, 문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앞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이었다”고 전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Only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에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녀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7:30 분당
주일에배 오전 9:30 분당
주일에배 오전 11:30 분당
주일에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에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에배 1부 오전 8:15
주일에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에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에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에배 1부 오전 9: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에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절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주일에배 2부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새벽 6:30
토요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주일에배 3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SF), L.A. CA 90010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에배 오전 8: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간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듬새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장년/교육부)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교황청 “성모 마리아에 ‘공동 구세주’ 칭호 부적절” ... 수백년 논쟁 종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셉 마테라 목사의 기고글인 ‘기독교 세계관이 현대 과학을 발전시킨 10가지 방법’(10 ways the Christian worldview developed modern science)을 최근 게재했다.

마테라 목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컨설턴트,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The U.S. Coalition of Apostolic Leaders), 그리스도 언약 연합(Christ Covenant Coalition)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마테라 목사는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이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로 근대 과학의 탄생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의 토양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우주가 합리적이며 질서 있고 인간 이성으로 탐구 가능한 세계라는 확신은 고대 이교 사상이나 무신론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핵심 전제였다”라며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1571~1630)는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마테라 목사는 “케플러는 고난과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과학적 사명을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연장선으로 이해했다. 그는 우주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며, 자연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책’으로 여겼다. 케플러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이 근대 과학 발전을 어떻게 촉진했는지 최소 10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1. 질서 있는 우주에 대한 신앙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목적과 설계에 따라 창조했다고 가르친다. 혼란스럽고 예측불가능한 우주를 묘사한 고대 신화와 달리, 성경은 질서의 하나님(고전 14:33)을 말한다. 케플러는 이 믿을 위에서 천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며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고 확신했다. 그가 행성의 타원 궤도를 발견한 것은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지적 탐구에 열려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2. 수학은 창조의 언어

케플러는 수학을 단순한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기록하신 언어로 이해했다. 그의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은 이러한 세계관의 산물이다. 수학적 조화는 그에게 곧 창조주의 흔적이었다.

3.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

기독교 전통은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가르친다. 케플러는 천문 연구를 예배의 한 형태로 간주했다. 이 신앙은 호기심을 넘어서 우주의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신학적 동기를 제공했다.

4. 이성과 창조주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는 믿음(창 1:27)은 인간이 합리성과 창조성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케플러는 인간의 지성이 자연 법칙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확신했다. 이 확신이 현대 과학의 기반이 되었다.

5. 신앙은 인내의 원천

케플러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죽음, 이단 의혹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연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됐다. 그는 발견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다.

6. 신학과 자연철학의 통합

케플러는 믿음과 과학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는 태양을 그리스도와 비유하며 지동설을 지지했다. 신앙은 그의 과학적 상상력과 통찰을 확장하는 자원이 됐다.

7. 진리 탐구는 신성한 의무

케플러에게 과학적 진리는 도덕적·영적 책무였다. 그는 편리하지만 부정확한 이론을 거부하고, 증거에 충실한 과학을 추구했다. 객관적 진리를 향한 이런 태도는 과학 방법론의 핵심이 됐다.

8. 조화로 이루어진 우주

케플러는 『우주의 조화』에서 우주를 ‘신적 음악’이 울려 퍼지는 하나의 교향곡으로 묘사했다. 그는 창조주가 아름다움과 조화를 사랑하신다고 믿었고, 이는 자연 법칙에서 우아하고 단순한 설명을 찾으려는 과학적 충동으로 이어졌다.

9.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의 겸손

케플러는 자신의 발견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겼다. 그는 연구 속에서 기도했고, 과학을 신앙의 도구로 삼았다. 초기 과학의 겸손한 태도는 바로 이런 신앙적 기반 위에서 있었다.

10. 현대 과학에 남긴 신앙과 이성의 유산

케플러의 법칙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가능하게 했고, 그의 방법론은 이후 과학의 길을 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 과학이 기독교와의 ‘대립’ 속에서가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과의 ‘협력’ 속에서 성장했다는 점이다.

결론: 오늘을 향한 케플러의 증언

요하네스 케플러의 삶은 신앙과 과학이 적대적이라는 통념을 무너뜨린다. 그의 발견은 신앙을 극복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제공한 철학적·신학적 확신의 결실이었다. 그는 우주가 합리적이며 탐구 가능하고 창조주의 지혜로 가득한 세계라고 믿었다.

오늘날 세속적 서사가 기독교의 과학적 유산을 지우려 할 때, 케플러의 삶은 강력한 증언으로 남는다. 근대 과학은 기독교 세계관의 흠 속에서 자란 나무였으며, 그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한 과학자들에 의해 맺어졌다.

이미경 기자

美 조지아 교회, 지역 400가구에 식료품 지원, ‘움직이는 사랑’ 실천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솔리드 록 교회(Solid Rock Church of Midland)가 최근 지역사회 소외 가정을 돕기 위해 400가구에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평균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약 300명인 이 교회는 최근 대규모 식료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제이 베일리 담임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활동을 넘어 “이웃이 이웃을 돕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일리 목사는 “지역사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가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 기간 중에도 식료품 나눔을 진행했던 솔리드 록 교회는 이번 행사가 규모와 범위 면에서 가장 큰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1,500개 이상의 식료품 가방과 250개 상자 분량의 비상 보관 식품을 전달했다.

이미경 기자

성경 앱 유버전, 10억 설치 기념 글로벌 라이브스트림 개최



뉴욕 타임스퀘어의 디지털 빌보드가 유버전(YouVersion) 성경 앱을 홍보하며, 전 세계로 확장되는 유버전의 영향력과 성경 참여의 증가를 강조했다. ©Courtesy of YouVersion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성경 앱 플랫폼 유버전(YouVersion)이 전 세계에서 누적 10억 건의 설치를 돌파하며, 이를 기념하는 글로벌 라이브스트림 행사를 17일(이하 현지시간) 저녁에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비욘드 어 빌리언: 성경을 축하하는 밤(Beyond A Billion: A Night to Celebrate the Bible)’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유버전이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블 먼스(Global Bible Month)’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의페이컴센터(Paycom Center)에서 생중계됐으며, 로렌 데이글(Lauren Daigle), 시시 와이넨스(CeCe Winans), 필 윅햄(Phil Wickham), 브록 리거트우드(Brooke Ligertwood), 맷 레드먼(Matt Redman), 크리스틴 케인(Christine Caine), 크레이그 그로셸(Craig Groeschel), 카리 조브(Kari Jobe), 코디 칸즈(Cody Carnes)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예배 인도자와 기독교 리더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직위원들은 이번 라이브스트림이 전 세계가 함께 성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유버전 창립자이자 CEO인 보비 그루엔월드(Bobby Gruenewald)는 이번 10억 설치 돌파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성경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쁨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쁨은 성경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며,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다”라고 그는 말했다.

CDI는 유버전은 올해를 ‘역대급 성경 참여 증가의 해’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유버

전 측에 따르면 전체 앱 설치의 지난해 대비 12% 이상 증가했으며, 일일 성경 사용량은 18% 늘어났다. 유버전 패밀리 앱 전체에서는 39일마다 전 세계 사용자가 성경을 총 10억 번 열람하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모바일 성경 앱 출시 이후 유버전은 3,600개 이상의 성경 번역본과 2,3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며, 기존 출판 시장에서 소외되던 지역 언어 공동체까지 폭넓게 아우르게 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만 1,000여 개의 교회·지역단체·출판사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그중 7,200개 콘텐츠 파트너와 2만 5,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내 유버전 설치 수는 1,770만 건을 넘어섰으며, 현지 교계 지도자들은 이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보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세인트 올데이트(St Aldate’s) 교회 스티븐 포스터(Stephen Foster) 목사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교회 참여가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다”며 “영국 곳곳에서 성경의 변화의 힘이 다시 발견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라이브스트림은 유버전이 글로리파이(Glorify), 할로우(Hallow), 더 바이블 프로젝트(The Bible Project) 등과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블 먼스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이 캠페인은 성경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30일 성경 읽기 챌린지’를 통해 매일 말씀을 읽도록 세계 시민들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11월 한 달간 유버전 앱 또는 인쇄본 성경을 활용해 매일 성경을 읽도록 권유받는다.

최승연 기자

미식축구 선수들, 경기 후 그라운드 한가운데 모여 기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식축구(NFL)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뉴욕 제츠 선수들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밤 펼쳐진 경기를 마친 뒤,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그라운드 한가운데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15일 보도했다. CP는 패트리어츠가 27-14로 승리하며 시즌 9승 2패를 기록한 직후였으며 양 팀 선수들은 길레트 스타디움 중앙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는 패트리어츠의 루키 러닝백 트레비온 헨더슨이 단연 돋보였다. 주전 러닝백 라몽드레 스티븐슨이 세 경기 연속 발가락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헨더슨은 커리어 최다인 19번의 러시를 소화하며 62야드를 기록했고, 러싱 2개와 러시빙 1개 등 총 3개의 터치다운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주 탬파베이전에서 올린 두 개의 터치다운에 이어 또다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친 것이다. 경기 후 헨더슨은 자신의 활약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며 “나는 내 역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분께 맡긴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분 없이는 너무나 연약하다. 진심으로 말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자신의 믿음을 거듭 강조했다.

CP는 헨더슨만 믿음을 고백한 것은 아

니였다고 밝혔다. 경기가 끝난 직후, 패트리어츠와 제츠의 선수들은 쿼터백 드레이크 메이와 저스틴 필즈, 패트리어츠 러시머 스테폰 디그스를 포함해 양 팀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들은 “주님,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2승 8패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제츠에게 이 날은 또 하나의 고전이었다. 필즈는 이날 26번의 패스 중 15개를 성공시키며 116야드를 기록했고, 존 메치 III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는 러싱에서도 팀 내 최다인 11회 67야드를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에이스 와이드러시머 개렛 윌슨이 무릎 부상으로 부상자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겹치며 제츠의 시즌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패트리어츠는 AFC 동부지구에서 3승 무패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최상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번 승리로 뉴잉글랜드는 리그 전체 1위를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으며,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는 더 확정될 전망이다. 인디애나폴리스와 덴버가 각각 8승 2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패트리어츠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승률이 보장되는 시즌을 확보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연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때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전6: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수요일예배 3부 오전12:15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전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kv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기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kvcc.org/lkv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70

배변은 숙면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제 6차 선교사자녀 장학생 마감 11/30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회 연합회가 오는 11월 30일(주일) 23:59(미 서부 시간 기준)까지 제6차 선교사자녀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원서는 연합회 웹사이트 <https://ockca.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로 고등학생 및 대학,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학생
- 2) 한 가정에 한 명만 가능하며, 연합회 후원 장학금 총 2회 받은 학생은 제외



- 3) 한국과 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자녀 제외
- 4) 오지선교 및 선교기간이 오래된 선교사 자녀에게 우선 지급

지원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지원서 외 성적표와 추천서를 같이 보내주면 된다. 6차 지원서가 아닌 것은 무효로 간주된다.

문의: ockca1@gmail.com

인터페이스 세미나 선교의 방향 세워준 마중물

인터페이스(Interface) 세미나가 11월 7일 오후 7시 알바인에 있는 디사이플 교회(교현중 목사)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알바인지역 카이로스 수료생들 및 지역 목회자들로, 시드 USA 총무 강대성 선교사, 오피도어 교회 이영찬 목사, 남가주 사랑의 교회 TJ간사, 디사이플 교회 이병준 선교 행정목사를 비롯해 디사이플 교회 성도들 14명이 참석했다.

인터페이스 세미나는 선교적 교회 개발에 초점을 맞춘 심플리 모빌라이징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교적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미나는 전 세계 교회에 카이로스 코스로 알려진 심플리 모빌라이징(simplymobilizing.us)이 교회 리더들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소개를 위해 시작됐다.

세미나는 워크숍 스타일로 진행됐다. 또 강의를 들은 후 삶에 적용



인터페이스 세미나가 디사이플 교회에서 열렸다. © simplymobilizing.us

한 내용들을 조별로 나누며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의 방향과 공동체적 실천을 모색했다.

세미나를 인도한 장경진 선교사(GPUSA, SMUSA)는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해 적용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권미진 참석자는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분명한 세계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 세미나는 먼저 교회 리더십, 선교부 리더, 제직, 부터 시작하길 추천한다. 담임목사와 리더들이 교육을 받은 후, 교회에서 직접 세미나를 인도하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 장규석 선교사 469-826-4420

그레이스미션대학, 12월 1일 정신건강 세미나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오는 12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더블 트리 힐튼 부에나 파크(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에서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 건강 회복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김상일 교수(GMU, Ph. D. Boston University)이며, 대상은 이민자의 트라우마와 도덕적 상해 관련 전공 학생, 교회 상담 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 gm.edu

련 사역자 및 이민교회 담임 목사 및 사모이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학교 웹사이트나 QR 코드로 등록

할 수 있다.
문의: aitas@gm.edu
웹사이트: gm.edu/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유철 칼럼

말씀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외환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발생한 국가적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 때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한 분이 도산의 위기 앞에서 극단적 생각을 할만큼 힘이 들었는데, ‘힘들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순종을 결단하고 디모데전서 6장15절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

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상황과 환경으로는 매일 매일이 절망이고 끝장인 것 같은데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기적들로 하루하루를 넘기며 견뎌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부터 기업이 확연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경쟁업체들이 IMF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주문이 이 회사로 들어와 놀라운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으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도 복이 생기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함께 하는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최강대국의 복을 받은 것은 God First의 믿음을 가진 청교도들에 의해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도 5천년 역사 동

안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지만 가난하고 약하고 침략당하는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K-문화, 음식, 상품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잘사는 나라가 된 것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공산주의 핍박도 이기며 기적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많은 유산 분깃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는 그 때부터 부패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잠깐은 자기 뜻대로 멋지게 사는 듯 했지만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짐승 같은 수준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행실이 가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품에 안아 주시고 손에

가락지, 새 옷, 새 신발, 살진 송아지를 잡는 잔치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끝이 좋아지는 것이기에 나의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망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전승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하루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와 복이 임하여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중한 성찬,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강준민 칼럼

상처는 은혜의 빛이 스며드는 틈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날마다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원에는 반드시 정원사가 있습니다.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황폐합니다. 정원사가 하는 일은 날마다 정원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제가 지키고 가꾸고 싶은 7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초심(初心)입니다. 초심은 처음 마음입니다. 초심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경험했던 감동과 떨림의 경험입니다. 초심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심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에베소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4). 초심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 깃들면 초심이 사라집니다. 초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냉담한 마음이 됩니다. 초심은 사명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초심은 거듭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수의 원천에 머무는 것입니다. 초심은 회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참된 영성은 초심을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는 순간 길을 잃지만, 초심을 회복하는 순간 다시 길이 열립니다. 둘째, 항상심(恒常心)입니다. 항상심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항상심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항상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항상심은 일관성입니다. 항상심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신뢰를 낳습니다. 항상심은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 자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셋째, 진심(眞心)입니다. 진심은 숨김 없고 꾸밈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심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신뢰의 언어입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진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심은 관계의 근본입니다. 신뢰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시 51:6). 여거스틴은 “진심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전심(全心)입니다. 전심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전심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전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

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전심은 열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전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거스틴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전심을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충심(忠心)입니다. 충심은 충성을 낳습니다. 충성(忠誠)이란 마음 중심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충심은 관계와 사명을 지켜 내는 영혼의 무게입니다. 충심이란 마음이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충심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충심은 조용하고 깊고 묵직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감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마 25:21). 충심을 품은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D. L. 무디는 “진정한 충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항상심(向上心)입니다. 항상심(恒常心)과 항상심(向上心)은 함께 동행합니다. 항상심은 지향성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항상심은 상승, 성장, 향상을 상징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항상심은 더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항상심은 더 발전하려는 마음입니다. 항상심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계발하려는 마음입니다. 항상심은 성장의 동력입니다. 성숙의 조건입니다. 항상심은 겸손과 배우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항상심은 성공보다 성숙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내적 열망입니다. 저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꾸준한 작은 향상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항상심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곱째, 뒷심입니다. 뒷심은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뒷심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힘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뒷심이 있어야 합니다. 뒷심의 본질은 지속력입니다. 지속력이란 잠깐 반짝이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뒷심은 회복력입니다. 거듭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뒷심은 인내력입니다. 고난과 지루함과 권태를 이겨내고 계속 전진하는 힘입니다. 왜 뒷심이 중요할까요? 성과는 끝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뒷심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뒷심을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갈 6:9). 하나님의 사람은 초심으로 시작하고, 항상심으로 중심을 지키며, 진심으로 관계를 세우고, 전심으로 헌신하며, 충심으로 신뢰를 쌓고, 항상심으로 성장하며, 뒷심으로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마음을 가꾸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서 시작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로운 정원사가 되시길 빕니다.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크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극히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9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 aurahelio@gmail.com
전화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락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미주 최초 시니어 미팅 이벤트
50대 60대 70대 젊은 청춘

로맨스그레이 호모미팅



젊음을 찾아드립니다.

50세 이상
싱글 시니어
ONLY



한국 최고의 결혼정보그룹 '선우' 와 미주조선일보가 함께합니다.

- ▶ 일시: **12월 21일 (일)** 오후 2시부터(약 3시간)
- ▶ 장소: 옥스포드팔래스 호텔(2층 다이너스티홀)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 대상: 50세 이상 싱글 남녀
- ▶ 참가 인원: 남녀 각 50명(총 100명)
- ▶ 참가비: \$150
- ▶ 참가문의: **(213)435-1113** | (주)선우



경/품/추/첨
한국 왕복 항공권
1매를 드립니다.
한국 ↔ 미국

당일 5~6명의 시니어 이성 만남이 이루어지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우 결혼정보 업체에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 됩니다.

주최 Since 1991 SUNOO Couple.net | (주)선우

후원 A&E 크리스천파운데이션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목동 칼럼

하나님의 선교 ACTS 1881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2018년 이후 중공은 거침이 없었다. 중국 몽과 일대일로로 표방되는 중화 사상을 공산당 이념과 공산당 구조와 혼합시켜 세계를 대상으로 위협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공은 기독교회가 서방과의 커넥션을 끌어들이는 주요한 통로라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중공의 공산당 권력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곳이 아닌,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는 곳이 되게 하였다.

그 결과 필자와 필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섬기던 비전 50 선교회는 예측하지 못한 완전한 빙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공 공안부에 의해 연행되고, 조사받고, 수감되는 중국인 목회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어마어마한 감시로 우리들이 컨택하면 즉시 이러

한 조치를 당하게 되니, 우리들은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 관성(慣性)의 법칙은 놀라웠다. 마치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비전 50 선교로 불타오르는 필자의 교회와 비전 50 선교회 멤버들의 열정은 영적 관성의 법칙에 의해 계속 증폭되고 있었다. 하여 여전히 중국 땅에서도, 또 다른 나라와 땅들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먼저 중국 땅에서는 중국의 비전 50 동역자들과 신실한 중국교회들은 땅속으로 스며드는 전략을 강화하였다. 과거에도 중공 공산당으로 인해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많아졌지만, 시진핑과 중공 공산당으로 인하여 더욱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갔다. 복음의 열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뜨거운 지하의 마그마가 되어 복음의 대폭발을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비전 50의 또 다른 관성의 법칙은 담을 뛰어넘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중국선교에만 집중되었던 모든 선교 자원들은 핍박과 단절로 인하여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낡은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와 팽창을 통해 낡은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비전 50 선교는 첫 번째 ‘팽창 폭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라고 표현한 것은 두 번째가 있기 때문임을 미리 밝혀둔다.

중공의 탄압으로 시작된 차단과 추방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중공의 담을 뛰어넘어 그 이웃 나라로의 복음 전선 확산으로 이어졌다. 하여 비전 50 선교도 그동안 축적해 오던 선교적 자원들을 중공의 담을 뛰어넘게 되었다. 그 결과 주변의 나라들—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리카 지역까지—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비전 50 선교의 물결이 확산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선교가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이것이 야말로 사도행전 8장 1절을 연상시키는 상황과 열매라고 확신한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상대적으로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상대적’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서바나를 언급한 것 외에 서바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고스란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1)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이를 ‘ACTS 1881’로 명명하게 되었다. 지금도 선교전략가이신 하나님에 의해 ACTS 1881은 더욱 놀랍게도 폭발하고 있고, 오늘날이 세계 선교의 최고의 전성기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비전 50은 이와 같이 중공 공산당에 의해 중국 전역에서 체포, 구속, 수감, 핍박이 진행되었지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지하로 스며들어 대폭발을 앞둔 마그마가 되었다. 또한 현지의 소식에 의하면 공산당이 댕아 놓은(?) 일대일로를 따라 12만 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사역 중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인가! 그리고 비전 50은 중공의 담을 뛰어넘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었으니, 이로 인해 우리가 전혀 예상지 못한 무슬림 나라에서 지난 한 해에만 3,000명의 세례자가 탄생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인가! 이것이야말로 Miracle ACTS 1881이 선교사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겸손히 고백한다.

(다음 회에 계속)

새라 김 칼럼

죄란 무엇? 바나 연구, ‘국가의 도덕적 나침반에 극적인 변화’ 드러내



새라 김 대표
TVNEXT.org

최신 바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죄’에 대한 이해와 정의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살펴볼 때, George Barna’s Cultural Research Center(바나 문화연구센터)는 최근 연구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설문조사와 그 분석 결과는 국가의 도덕적 나침반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죄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혼란을 기록한 이전 보고서들

을 뒷받침하고 확인시켜 주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젊은 세대가 노년층보다 더 큰 도덕적 혼란을 보였습니다. 조지 바나 문화연구센터 조사에 의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미만(43%)만이 죄악된 행동이 악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인 5명 중 3명(62%)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보다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더 편하게 사용했는데, 이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바나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약 6명(61%)이 죄는 죄책감을 유발하지만, 죄책감이 그 죄 자체보다 더 나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전통적으로 죄악으로 여겨지던 12가지 항목 중 이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 6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죄악시되던 12가지 행동 중 6가지만 죄로 여겨졌는데, 이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의적 거짓말 또는 속임, 타

인을 조종하는 행위, 공격적 언어(speech), 성(Sexuality) 관련, 신앙(Faith) 관련, 약물 사용(Drug Use)과 같은 항목들이다. 성인의 거의 4분의 3(73%)이 이러한 행동을 죄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언어(speech)’, ‘성(sexuality)’, ‘신앙(faith)’ 같은 영역을 왜 죄목으로 인식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지난 15년간 ‘선’과 ‘악’의 정의를 언어·성·선택(choice, 예: 무분별한 낙태) 등으로 바꾸어 놓은 악법과 정책들에 의해 문화가 변질되었고, 사회·심리적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관대해지고 있는 미국 (1) : 조지 바나 박사의 분석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연구센터의 연구 책임자인 조지 바나 박사는 연령대에 따라 죄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지만, “죄에 대한 재정의(redefinition)는 도덕성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한탄했습니다.

“현재 데이터 패턴은 지난 10년간 미국 사회에서 가족 구조(family structure), 개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s), 진정성과 윤리도덕(integrity and ethics), 신앙 실천(faith practices),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선택 등 주요 영역에서 발생한 사회적 격변을 반영한다. 이는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이다.” 조지 바나 박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의 반응 패턴을 보면 도덕적 재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en Z 세대 성인 인구는 현재 전체 성인의 10% 미만이지만, 해당 세대 구성원이 모두 18세 이상이 되면 이 비율은 거의 4배에 달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미국 인구 중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의 비율은 전체 성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집단’ 중 하나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향후 10~20년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적 퍼즐의 세 번째 조각은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로, 이 역시 급속히 성장하는 집단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호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또는 TVNEXT.org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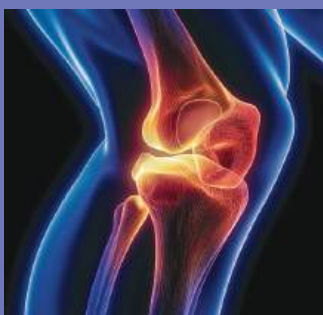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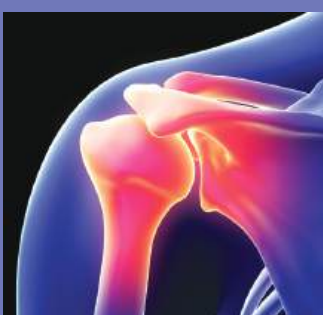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
다시, 편안하게!"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릭,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엄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213.384.3333

www.kiseidousa.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역설의 진리, 팔복으로의 초대

산상수훈 속 팔복, 보통 말하는 ‘복’ 이 맞는가?



예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

김건우 | 샘솟는기쁨
296쪽 | 18,500원

여덟 가지 빛나는 보석,
진정한 복이 필요한 시대에
다시 배우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저자의 팔복 강해에서
산상수훈을 투영한 명쾌한
말씀의 진수를 만난다
오늘의 복을 재정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응답하고 있다.
팔복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들의 핵심 가치이자
삶의 황금률이다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이
필요한 시대. 복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로운 성품은
타고난 기질을 넘어선다
영적으로 변화되는 성품이
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령의 역사,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물질적 풍요, 성공, 건강, 그리고 편안함과 연관돼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은 이러한 세속적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다. 김건우 목사의 <예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 역설의 진리, 팔복으로의 초대>는 이 역설적 진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의 참된 의미를 일깨운다.

역설의 진리: 팔복의 근본 의미

이 책의 핵심은 ‘역설의 진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데 있다. 저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복’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의외”라고 언급하며 책을 시작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첫 메시지가 바로 참된 복에 관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역설이란 겉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진리가 되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은 표면적으로, 세상 기준으로는 ‘복’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가난함, 애통합, 온유함, 의에 주림, 긍휼함,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함, 박해받음 등을 복이라 선언한다.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적 가르침이다.

저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소개되는 팔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서,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복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한다”라고 설명한다. 이 역설적 진리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철학적 담론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된다.

팔복의 세부 해석과 적용

1. 가난의 복: 마음에 빈자리가 있

습니까?

저자는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토코스’는 ‘거지, 빈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라며, 심령의 가난함이란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세상은 자족과 풍요를 복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비어 있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빈 공간이 있는 삶이 복임을 강조한다.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모순되는 말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는 구절은 이 역설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2. 애통의 복: 진정한 슬픔이 주는 위로

저자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슬픔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악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애통할 뿐 아니라 교회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는 구절로, 애통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됨을 강조한다.

3. 온유의 복: 세상을 이기는 참된 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는 구절은 온유함의 역설적 힘을 보여준다.

세상은 강함과, 지배, 통제를 통해 성공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온유함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신다.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영

적 갈망의 충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 곧 의롭지 못한 것은 복음 증거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하며, 이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5. 긍휼의 복: 받는 것보다 베푸는 기쁨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며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는 구절은 긍휼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타인을 향한 자비와 연민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복임을 강조한다.

6. 청결의 복: 하나님을 보는 순결한 마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섯 번째 복 역시 세상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마음의 청결

함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외적 성공과 이미지에 집중하는 세상과 달리, 예수님은 내면의 순결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강조한다.

7. 화평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화평은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화평은 성경에서 400번 이상 언급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라고 저자는 언급한다.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복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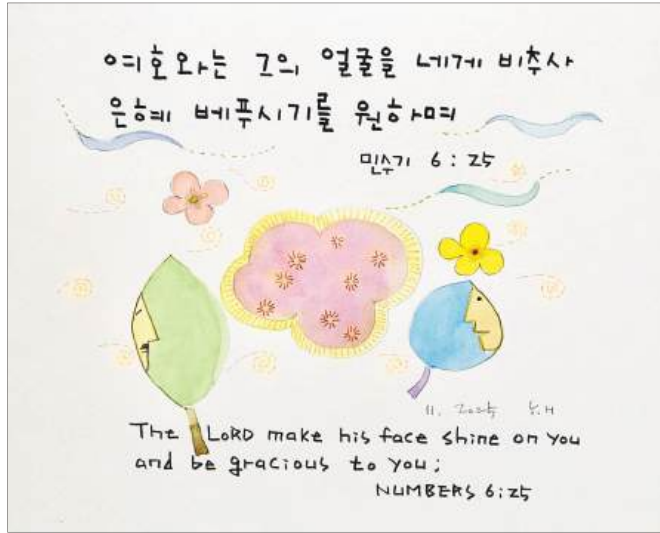
8. 박해의 복: 신앙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고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사실을 예언하며 강조합니다”라는 구절은 박해와 고난이 신앙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증거임을 보여준다.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세상과 달리,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천국에 속한 증거라고 말씀하신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기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네덜란드 화가 피테르 브뤼헬의 두 작품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탄,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은 화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
가장 익숙한 곳을 탄생지로
조감도적 다양한 인간군상
〈눈 속의 동방박사의 경배〉
핍박받던 땅으로 오신 예수
성도들 절실한 소망 담아내

피테르 브뤼헬(Pieter Brugel the Elder, 1526~1569)은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 중 한 명이다. 당시 그가 태어난 네덜란드는 스페인 점령 하에서 모진 핍박을 받았고, 점령국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에게 과도한 세금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스페인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치 않는 데 있었다. 펠리페 2세는 누나 마르가리타를 내세워 종교 비관용 정책을 지속했으나,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불어났고 스페인에 대한 저항은 갈수록 거세졌다.

그러던 중 1566년 일군의 칼빈주의자들이 가톨릭교회에 설치된 이미지와 조각을 훼손하는 이른바 ‘벨덴스톰(Beeldenstorm)’을 일으켰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펠리페 2세는 알바공(Daue de Alba)을 파견해 칼빈주의자들과 개신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Carlos M. N. Eire, War Against the Idol,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80쪽).

칼빈주의자들의 행동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넘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갈등 및 불만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신임 총독 알바공은 저항세력을 소탕할 계획으로 종교 재판소에서 1만 8천여 명을 살해하는 공포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네덜란드 독립 운동을 촉발시켜 ‘8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피테르 브뤼헬은 스페인의 만행을 알리는 그림을 남기진 않았지만, 〈바벨탑〉과 같은 작품에서처럼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며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 〈유아 학살〉에서 스페인 기마병들이 저지대 주민들의 아이들을 살해

하는 끔찍한 장면을 그리기도 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의 오만함과 스페인의 만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암흑한 시대에, 화가는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보았을까? 여기서는 스페인의 네덜란드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무렵에 그가 제작한 〈베들레헴의 인구조사〉(1566)와 〈눈 속의 동방박사의 경배〉(1567)를 살펴보려고 한다.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는 성경 기록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눅 2:1)”는 칙령을 받은 시리아 총독 구레뇨(Quinius) 주관으로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로마 황제는 당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유대 주민들과 그들의 재산을 등록하게 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를 떠나 남쪽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림은 요셉과 마리아가 해질녘 베들레헴 마을에 도착한 순간을 담고 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려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했다. 마리아는 나귀에 앉아 지친 기색에 눈을 감고 있고, 요셉은 긴 톱을 메고 여관에서 호적을 등록하는 인구조사관에게로 향한다. 성(聖)가족 뒤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허름한 마구간이 보인다. 이 그림은 몇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데, 첫째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지대 지방을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뤼헬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곳을 예수님의 탄생지로 삼았고, 그속에 눈 덮인 마을과 주민들, 그리고 요셉 가정을 위치시켰다.

둘째는 주제의 명확성에 비해 구도가 산만하다는 것이다. 브뤼헬의 화면 구성은 독특하다. 중심 인물이 없거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애용한다. 특히 광활한 공간에 조감도적 시점을 접목시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배치하는 것은 피테르 브뤼헬의 조형적 특징이다.

화면은 S자 구도를 취해, 마을 건너편 인물들이 빙판을 지나 인구 조사관 앞으로 이동하도록 의도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세금



▲피테르 브뤼헬, 베들레헴의 인구조사, 1566.

을 걷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화가가 이 그림에서 세금에 시달리는 저지대 주민들을 통하여 펠리페 2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려 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브뤼헬이 그림 배경을 저지대로 바꾼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앞서 말한 현실에 대한 비판보다 좀 더 적극적·희망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지만, 그것은 동토의 땅에 왕이 오심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지대 주민들에게 이 그림은 ‘희망의 서광’이 됐을 것이다.

〈눈 속의 동방박사의 경배〉 역시, 제목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 군상으로 직조된 풍속화로 이해될 수 있음직하다. 이 그림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처럼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좌편 하단 마구간에 있다. 거기서 두 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있으며, 다른 흑인 박사는 예물을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 성탄을 축하하는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동방박사와 그 일행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거나 반갑게 맞이하는 행인들이 드물다. 종래 성탄 그림은 아기 예수와 부모와 경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반면, 이 그림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자기 할 일을 수행할 뿐이다.

아들 얀 브뤼헬(Jan Brugel the Younger)이 묘사한 아버지의 〈눈 속의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면, 경배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보다 담벼락 뒤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수가 더 많다. 어떤 이는 땀감용 나무를 손질하고 있으며, 두 남성은 얼음에 구멍을 내기 위해 나무를 세워 올리고 있다.

이 밖에 추위에 어딘가 바쁜 걸음으로 가는 사람들, 썰매를 지치는 아이와 이를 지켜보는 엄마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들보가 아니라면 곧 허물어질 것 같은 폐허의 로마네스크식 건물은, 이곳이 잔

칫집이 아닌 매우 위태롭고 침울한 장소임을 암시한다. 그림을 제작한 1567년은 알바공작이 네덜란드를 철권통치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처형한 ‘피의 법정’을 일으킨 연도에 해당한다. 그림에서도 무장한 병사들이 눈에 띄는데, 시민의 생활을 감시하는 스페인 군인이 맞다면 이야기는 무거워진다. 개신교 신자들과 시민들로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의 만행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이 느낀 두려움과 공포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판 만데르의 지적처럼 가톨릭교회나 국가에 불온한 감정을 공공연히 표현하는 것은 엄한 처벌을 받았으므로, 브뤼헬 또한 이를 각오하고 붓을 들어야 했을 것이다(Walter S.Gibson, Bruegel, 김숙 역, 『16세기 플랑드르 최고의 화가 브뤼겔』, 시공사, 2001, 162쪽).

〈눈 속의 동방박사의 경배〉는 마냥 즐겁고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다. 화가는 아기 예수를 핍박받는 네덜란드 땅에 오신 것으로 설정했다. 그가 플랑드르에 오신 그리스도에 주목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가혹한 폭정, 박해, 희망 없음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구했을 테니까. 그런 절실한 소망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셈이다. 브뤼헬의 성탄 그림이 발표된 후 450년이 흘렀다. 그런데 2024년 예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어지러운 정국으로 우리 삶과 사회 전반이 요동친다. 모든 것이 삼시간에 혼란에 빠진 듯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고 있다. 안트베르펜의 추위만큼이나 시련의 계절을 통과하는 중이다.

우리의 불순종을 통회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서성록 명예교수



▲피테르 브뤼헬, 눈 속의 동방박사의 경배, 1567.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46개의 벽을 허물고 ‘빛’을 들이다

LA 한인타운의 복합 문화 공간, ‘EK 갤러리’ 유니스 김 관장

LA 한인타운 크렌셔(Crenshaw)길과 올림픽 대로와 피코 대로 사이, 과거 46개의 방으로 쪼개져 어둡고 밀폐되어 있던 노래방 건물이 있었다. 밤이면 시끄러운 노래 소리로 주변에 피해를 주던 곳이 지역 사회를 위한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림이 걸리고, 음악이 흐르며, 커피 향이 감도는 곳. 유니스 김 관장이 이끄는 ‘EK 갤러리’의 이야기다.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는 유니스 김 관장을 만나, 이 공간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은퇴 후 마주한 우연한 소명, “돈보다 나눔이 먼저”

유니스 김 관장은 원래 치열한 패션계에서 수십 년을 보낸 디자이너였다. 1년 뒤의 유행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숨 가쁜 삶에 지쳐 은퇴를 결심했을 무렵,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나눔’이었다.

“중앙일보와 함께 노숙자를 돕기 위한 자선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런데 타운 내에 마땅한 전시장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대관료는 터무니없이 비쌌고요. 비싼 렌트비를 내고 나면 정작 어려운 이웃은 어떻게 돕나 싶었죠.”

그때 지금의 장소를 만났다. 원래는 답답한 칸막이로 가득 찬 유흥업소였지만, 김 관장은 과감하게 모든 벽을 허물었다. 46개의 방을 뜯어내고 벽을 뚫어 창을 내자, 건물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이곳을 돈 없는 작가들도 꿈을 펼치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갤러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무대”

EK 갤러리는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의 엄숙함 대신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김 관장은 이곳을 ‘다목적 커뮤니티 타운’이라 정의한다.



EK 아트 갤러리 관장 유니스 김 권사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있다.

높은 천장과 오픈형 구조의 1층 이벤트 홀은 각 행사의 특성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다. 음향과 조명, 벽 한면을 차지한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대형 작품 전시는 물론, 젊은 연극인들의 무대, 패션쇼 런웨이, 결혼식과 파티, 기업 세미나, 지역 사회를 위한 의료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악기를 갖 배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연습할 곳 없는 밴드, 무대가 필요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명석을 깔아주고 싶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대관료를 받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단체엔 기꺼이 무료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 감각적인 ‘Cafe du Gallery’

갤러리를 둘러보다 출출해지면 바로 옆 ‘Cafe du Gallery’로 발길을 돌리면 된다.

메뉴에는 패션 디자이너 시절 유

럽 출장을 다니며 맛본 미식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프랑스식 ‘크레페(Crepe)’와 명란을 듬뿍 넣은 ‘명란 파스타’, 그리고 그가 직접 개발한 건강식 ‘레인보우 샌드위치’는 이곳의 시그니처다. 고구마와 아보카도 등 건강한 재료로 채운 샌드위치는 특히 외국인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시회 왔다가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소풍 온 것처럼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으며 수다도 떨고, 그림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 “문화를 즐기는 삶, 한인타운의 레벨을 높이다”

김 관장은 15년 경력의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비지니스를 하면서 출장이 잦았다.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기억들을 기록하듯 셔터를 눌렀다. 별단이 쌓여있는 농촌 풍경부터 요세미티의 빛 내림까지, 풍경을 기록해온 그는 이제 그 시선을 지역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돌리고 있다.

또, 한인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구상 중이다. 여성들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문화를 즐기고 교류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나누는 꿈이다.



카페 두 갤러리(Cafe du Gallery).

◆ “서울은 뛰는데 우리는 멈췄다”

LA, 문화적 ‘업데이트’ 시급

유니스 김 관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현실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문화적 충격’을 나눴다. “예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면 한국에서 다들 특별하게 대우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나가면 제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기분입니다. 한국 분들의 문화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미술, 발레, 클래식 등 모르는 게 없고, 향유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반면, 김 관장이 바라본 LA 한인 사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민 생활이 바쁘고 힘들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이제 핑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뭘 샀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 사

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의 취향이나 안목을 기르기보다 유행을 쫓기 급급하죠. 이걸 우리 커뮤니티의 레벨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갤러리에 와서 그림을 꼭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Seeing is Believing(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처럼, 와서 좋은 작품을 눈에 담고, 안목을 넓히는 것 자체가 교육이고 발전입니다. 언론과 리더들이 나서서 ‘이제 우리도 문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수준을 높이자’는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미국 사회의 당당한 주류로 설 수 있습니다.”

토마스 맹 · 주디 한 기자
E.K. Art Gallery
1125 Crenshaw Blvd, LA, CA 90019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투우밥술,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행 CD 지금 나와서 복리 어뉴이티로 들어가세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은행에 CD를 끝내면 묶고 하면서 계속 30만불을 가지고 있는데 올 해 들어간 4.2% 받는 CD는 올 11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4% 이자는 주지 못한다면서 3.5% 이자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은행장님이 직접 문선영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해서 유튜브 먼저 봤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의 그 많은 유튜브 내용 중에 어뉴이티 비디오만 9개를 보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공부 잘 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라 돈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식 같은 것은 제 성향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항상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은행만 이용해 오던 중 어뉴이티에 관심이 아주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그렇게 어뉴이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일단 없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어뉴이티 하면 무조건 손해 본다고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뉴이티가 해당이 될까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은행을 이용해 오시면서 올

해는 4% 이자까지 받으셨으니 이제 거의 마지막 은행의 높은 이자를 잘 활용하셨네요. 이렇게 은행의 이자가 좋았던 지난 3년은 40년만에 거의 처음이었죠. 다만 어뉴이티와 비교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종

을 두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왜 주변에 어뉴이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없다는 점에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CD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고 일하시다 보면 목돈을 모으는게 그리 녹녹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목돈을 묶어서 CD나 어뉴이티에 묶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게 그리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모, 이민 1세대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직장의 퇴직금, 비즈니스 처분하신 돈, 집 파신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막 시기가 된 거죠. 따라서 그나마 익숙한 은행의 CD는 경험을 해보셨어도 목돈이 들어가는 어뉴이티는 그만큼 이용한 역사가 길지 않아서입니다. 반면 요즘 들어 어뉴이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이유는 이제 한인 1세대들께서 이제 목돈

을 가지고 나오는 시기가 되었다,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뉴이티를 활용할 만한 시기가 된 거죠. 둘째 어뉴이티를 가입하면 손해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어뉴이티인지와 어뉴이티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셨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뉴이티와 CD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은행 CD와는 달리 어뉴이티는 오르고 내리는 변동이자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 중 본인이 변동이자를 선택한 줄 모르고 선택하셔서 손님의 돈이 플러스 이자로 오르기다 했지만 마이너스 이자를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 어뉴이티에서 손해를 보셨을 거고, 혹은 너무 안전하지만 적은 이자 겨우 2% 정도 년평균 이자를 받은 경우도 이 어뉴이티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뉴이티 플랜의 장점 하나는 은행

**Sun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MONEYTALK@GMAIL.COM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과 같은 고정이자나, 주식시장의 변동이자 뿐 아니라,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내 돈을 지켜주는 마이너스 이자가 없는 그런 지수성 인덱스드 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수성 인덱스드 이자를 선택하시면 어뉴이티로 절대 손해 보지 않게 되죠. 셋째, 과연 어뉴이티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질문에는 이자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3.5% 이자를 받는 CD의 “단리이자”는 앞으로 7개월, 10개월 후면 계약이 끝날 거고 택스를 내고 찾으셔야 할 겁니다. 반면 당장 10개월 후 쓸 돈이 아니다 싶으시면, 어뉴이티의 절대 손실 없는 지수성 인덱스드 어뉴이티로 7년 혹은 10년 동안 전체 내 돈에서 10%씩 매년 찾아 쓸 수

있으면서도 자란 돈 전체에 이자를 받는 “복리”의 효과를 보실게 될 거라는 거죠. 30만불을 넣어 놓은 CD에 3.5% 이자인 \$10,500을 받고 거기에 세금 내고 나올 것인지, 30만불을 10년 후 60만불로 자라서 30만불의 이자를 받을 것인지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돈은 자라고 단리가 아닌 복리로 받아야 큰 효과를 보며 자라게 됩니다. 또한 오래 묶어 두어야 복리의 힘을 발휘합니다. 어뉴이티에 대한 장점과 단점, 과연 나에게 맞는 어뉴이티는 과연 무엇일지 꼭 연락주셔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0년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겠습니다.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56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초 대 합 니 다

56년 역사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56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오셔서 축복과 격려와 감사의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임	취 임	
제55대 회장 샘 신 목사 샘커뮤니티교회 담임			제56대 회장 김은목 목사 평화교회 담임

말/씀/선/포

강 사		제43대 증경회장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	--	--

- 일시: 2025년 11월 25일 (화) 오후 5시
-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목사 시무)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저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비전은 “남가주 한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아래 하나되어
지역 사회의 희망과 섬김의 등불이 되며,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는것”입니다.